

## 文學에 잇서서 倫理와 論理 (5)

金午星

主體의 眞實을 찾기 爲하야 無에까지 드러가는 態度는 客觀에만 汲汲하는 態度에 比하야 人間을 深刻化시키는데 必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虛無로부터 創造, 이것이 果然 새 倫理가 될 것인가? 虛無에서 創造되는 것은 아름다운 꿈이나 幻想이기 쉬울 것이다. 꿈과 幻覺이 文學에 必要한 것임은 勿論이다. 하나 그 꿈과 幻覺이 現實性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現實人間이 要求하는 바 文學은 될 수 업을 것이다. 꿈과 幻覺이 現實性을 가져 오려면 그것이 어느 客觀的인 基準에 依하야 判斷되며 檢討되지 안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無』에 當到한 파토스는 『虛無로부터의 創造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創造의 對象을 다시 客觀的 基準에서 求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리하기 爲하야는 파토스는 로고스와 握手하지 안으면 안된다.』今日の 倫理主義는 다시 새로운 視角에서 論理와 結着해야 한다. 合理主義와 非合理主義 아니 理性的인 것과 倫理的인 것의 結合에서만 文學은 眞實한 意味의 創造를 營爲할 수 잇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注目할만한 事實은 今日の 非合理主義에 立脚한 主體的 倫理가 오히려 한 개의 리아리즘[리얼리즘]에 서있다는 것이다. 從來의 理性主義 倫理는 한 개의 理想主義的이였다. 論理에서 演繹된 良心, 正義, 善等の 格率을 가지고 人間을 敎育하며 陶冶하려는 것이 倫理의 目標였다. 그리하야 아무런 感情이나 意欲에도 움죽이지 안코 오직 理性的의 命令대로 行爲하는 人間을 맨드러 내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倫理는 언제나 理想에 멈출뿐, 아무 現實性을 보혀주지 못했다. 웨-그랬냐 하면 人間은 單히 理性的의 判斷만을 갖고잇지 안코 主로는 激情과 意欲 속에서 살고잇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즘文學에 나타나는 새 倫理는 어떤 格率을 가지고 人間을 敎育하며 陶冶하려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眞實性을 把握하며 眞實한 人間性을 發見하려는 것이 그 眼目인 것이다. 리아리즘이 새 倫理의 地盤인 것이다. 그런데 倫理的 리아리즘은 客觀的 리아리즘이 아님은 勿論이다. 客觀的 리아리즘은 인간이 自己의 恣意를 떠나 客觀的 事象 속에 沒入하는 態度를 일으키는 것이나, 倫理的 리아리즘은 그 反對로 人間의 內面的, 主體的 生活의 眞實性

을 追求하려는 態度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今日的 倫理文學에서 보면 客觀主義는 그것이 不道德한 것만은 抽出하는 까닭에 非倫理的인 것이 아니고, 그 客觀的 描寫 때문에 人間의 主體的 眞實性을 把握치 못한대서 倫理性을 缺如했다는 것이다. 今日 倫理學이 그 準據를 삼는 도스토이엥스키[도스토예프스키]는 人間의 不道德한 行爲를 情熱을 다하여 描破하였다. 그러나 도스토이엥스키의 文學은 人間을 眞實하게 描出하였다는 點에서 倫理性을 가졌다는 것이다. 人間의 眞實性을 追求하는 것이 倫理文學의 眼目인 것이다.

이러한 主體的 리아리즘은 첫째, 心理描寫에 特長을 가지고 있다. 客觀主義는 事象속에 沒入하는 까닭에 人間의 心理生活을 描寫할 機會를 갖지 못했으며 또 人間의 心理生活을 客觀的 事實에 依한 한 개의 波動現象으로밖에 보지 안혔다. 그러나 우리의 心理生活에는 客觀的 事象 속에만 그 原因을 돌릴 수 업는 主體的인 意識이 潛流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現實을 超克할 수 잇는 것이다. 客觀에 依據하는 心理는 혼이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항상 客觀에의 志向을 갖고잇음으로써이다. 그러나 客觀에 歸納할 수 업는 心理는 파토스라 할 수 있다.